

1. 암울한 사사 시대에 빛을 드리우는 사람들

(1) 한나

- 육체의 불임보다 '시대의 불임'에 더 슬퍼함

⇒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

시대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소망함

(2) 한나의 아들 '사무엘'

-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

- 블레셋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회복함

(3)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

- 백성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⇒ 왕정 시대 시작
-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'사울'

2.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사울의 몰락

- 왕이 될 조건 ⇒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
- 이스라엘의 왕도 ⇒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
- 점점 하나님의 왕도를 떠나는 사울

2. 이스라엘의 소망이었던 사울의 몰락

(1) 하나님의 왕도를 떠난 사울

-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스스로 번제를 드림
- 번제를 드린 사울의 동기

⇒ 하나님이 아닌 자신

스스로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함

(2) 하나님의 왕도를 떠난 사울

- 사울에게 주어진 두 번째 기회 ⇒ 아말렉 전투

- **사울의 불순종**

⇒ 전리품을 온전히 바치지 않음

⇒ 하나님보다 백성을 두려워함

- 결국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시는 하나님

⇒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'다윗'